

영주봉화지사, 평은면 농가 찾아 일손돕기 활동 실시

백성호 기자 | 승인 2026.05.21 21:34

영주시 평은면 사과 적과 작업에 직원 10여 명 참여
농가, 적기 수확 지원에 큰 도움 받았다고 감사 표해
영주봉화지사, 농촌 고령화 문제 해결에 적극 노력



한국농어촌공사 영주·봉화지사 일손 부족 농가 찾아 농촌일손돕기 실시

(영주=국제뉴스) 백성호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 영주봉화지사가 영주시 평은면 오운리에서 농번기 인력난을 겪는 농가를 대상으로 일손돕기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일손돕기는 20일 사과 적과 시기에 맞춰 진행됐으며, 영주농협과의 협업으로 영주봉화지사 직원 10여 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비가 오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적기 수확을 지원하는 작업에 힘을 보탰다.

조정옥 영주봉화지사장은 농촌의 고령화와 인력 부족 문제로 인해 농가의 적기 작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활동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일손이 필요한 농촌 현장을 찾아 지역 농업인과 상생하며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사과 적과 작업을 지원받은 농가 주민은 한국농어촌공사 직원들의 적극적인 도움 덕분에 큰 걱정을 덜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백성호 기자 bsh2646@daum.net